

野, 우상호 비대위원장 추대…“중립적 리더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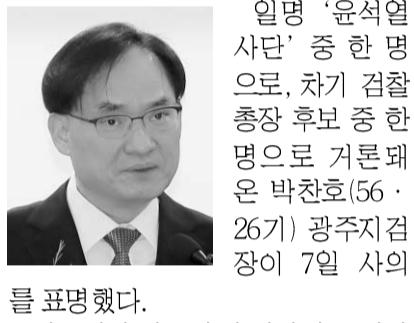
친명·비명 갈등 속 원로·중진 후보 추대 난항

‘86 민정’ 옆은 계파색… ‘총선 불출마’도 이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과 6·1 지방 선거 참패로 휘청이는 당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586 중진 우상호 의원(4선·서대문갑)을 추대한 것은 지방선거 참패를 둘러싼 친문·

‘尹사단’ 박찬호 지검장 사의 “명예회복돼 떠날 때”



일명 ‘윤석열 사단’ 중 한 명으로, 자기 검찰총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돼온 박찬호(56·26기) 광주지검장이 7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지검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박 지검장은 사의 글에서 “밖에서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검찰이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고 본분을 수행하도록 항상 응원하고,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적었다.

사법연수원 26기인 박 지검장은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 중앙수사부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 검사, 대검 검찰연수관, 삼성비자금 특별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이던 2017년 8월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냈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이던 2019년 7월에는 대검 공안부장으로 임명돼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제주지검장으로 좌천성 발령이 났고, 지난해 6월부터 광주지검장으로 전보됐다.

박 지검장은 사의글에서 좌천성 인사를 받았던 때를 언급하며 “이런 저런 이야기가 들렸지만 패기를 잊지 않으려고 하였다”고 적기도 했다.

전남 동부권 정치권력 ‘법조인 전성시대’

국회의원 모두 민주당 소속 검사·변호사 출신

윤석열 정부의 검찰 출신 전진 배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남 동부지역(여수·순천·광양)의 정치권도 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정치적 다양성 실종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남 동부지역 국회의원 4명과 시장 3명 등 7명 중 검사와 변호사 출신이 6명에 달한다. 국회의원 4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이며 검사 출신 3명(주철현·김희재·소병철), 변호사 출신 1명(서동용)이다.

주철현 의원(여수갑)은 2011년 광주지검장과 2012년 대검 강력부장을 역임했으며, 퇴직 후 2014년 민주당 공천을 받아 여수시장에 당선됐다. 이후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에 선출됐다.

김희재 의원(여수을)은 2015년 광주지검장과 2018년 의정부지검장을 지낸 후 법복을 벗고 민주당 공천을 받아 2020년 국회의원 베트를 달았다.

순천 출신인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011년 대구고검장과 2013년 법무연수원장을 지냈으며, 2020년 민주당 전략공천

고양정), 재선에서는 박재호(부산 남구을), 3선에서 한정애(서울 강서병)의 의원과, 원외위원장협의회 뒷으로 현 협의회장인 김현정 경기 평택을 지역위원장, 당연직으로 박홍근 원내대표를 선임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 추대는 극한 충돌은 피하려는 친이재명계(친명)와 비이재명계(비명)의 계산이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원은 당내 최대 세력인 86 그룹에 ‘발언권’이 있는 민형 격인 중진으로 친영 대변인은 전했다. 4선 이상 중진 뒷 비대위원장으로 우 의원을 선임하고, 민장일치로 최다선 의원인 우 의원에게 비대위원장은 맡길 것이다.

아울러 선수별로 추천할 비상대책 위원으로 조선에서는 이용우(경기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법친문이

면서도 지난 대선 때는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 뛰는 등 계파색이 상대적으로 옅은 부분도 양 계파의 거부감을 낮추는 지점이다.

여기에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출마하며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86 용퇴론에서도 자유롭다는 점도 있다.

당 대변인부터 원내대표에 이르기 까지 요직을 두루 역임한 전략통으로 당내 사무에도 빛나 오는 8월 전 당대회까지 안정적으로 당을 관리하기는 기대도 엿보인다.

결국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리더십이면서 동시에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정치력을 지닌 ‘관리형 비대위원장’으로서 우 의원이 낙점된 셈이다.

/뉴스



한미공군, 대북 무력시위

합동참모본부는 7일 한·미가 서해상 공역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공중무력시위 비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 공중무력시위 비행에는 한국 공군의 F-35A, F-15K, KF-16 전투기 16대와 미 공군의 F-16 전투기 4대가 참가했다.

한미 공군, 서해서 대북 무력시위…F-35 등 20대 동원

韓 F-35A·F-15K·KF-16…美 F-16 투입

한미 공군이 7일 서해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무력시위를 벌였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오후 “한미 동맹은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전날 한미 연합 지역 미사일 사격에 이어 오늘 공중무력시위 비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투기들은 이날 오전 서해상 공역에서 공격 편대군을 형성해 적 위협에 암도적으로 대응하는 비행을 했다.

합참은 “한미는 이번 연합 공중무력시위 비행을 통해 한미 연합 방위 능력과 태세를 현실화로써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과 의지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합참은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주제로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

정밀 유도 무기를 장착한 한국 공군 F-35A, F-15K, KF-16 전투기 16대와 미 공군 F-16 전투기 4대가 참가했다.

전투기들은 이날 오전 서해상 공역에서 공격 편대군을 형성해 적 위협에 암도적으로 대응하는 비행을 했다.

이날 이 의원의 의원실인 818호 앞에는 30여명의 최재진이 몰렸다.

818호는 송영길 전 의원이 쓴 의원실로, ‘공란’이었던 의원실 명쾌

는 이날 오전 등원 전 이 의원의 이름으로 채워졌다.

이 의원은 오전 9시47분께 걸은

색 자켓에 흰색 셔츠, 파란색 넥타

이 차림으로 의원회관 8층에 모습

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첫 등원 소감으로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또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

계파 간 갈등에 대한 입장에

대해선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들의 의견을 낸 자세로 겸허하게 열심히 듣고 있다”, “정치에서 국민과 당원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즉답을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산 사저 앞 보수단체

의 시위는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폭

력적이고 비인도적인 태도”라며 “이

를 용인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

의 고통마저 외면 하겠다는 대통령의

옹졸함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뉴스

‘文 사저 시위’에 尹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 허가”

野 ‘시위 법대로’ 尹에… “욕설·고성방가 용인?”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시위를 방지한 욕설과 고성방가를 용인하고 양산 주민의 고통을 방지해야 한다는 말이나”고 밝혔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보수단체 시위 논란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라며 ‘법에 따라야 되지 않겠냐’고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자연인으로 돌아가 조용히 살고자 하는 퇴임 대통령과 그런 대통령을 이웃으로 받아들인 평산마을 주민들에게 폭력적이고 비인도적인 괴롭히기 가 해지고 있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당선자는 7일 직선 4기 광주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장에 정철웅 광주환경운동연합 고문을, 부위원장은 임형택 광주대학교 경 등 광주 미래 교육을 위해 당선인 직속 미래 교육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원회에는 총 19명의 교사·교육공무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낙연 “국내 있는 분들이 잘해주길”

미 유학떠나 “강물은 끝내 바다에 이른다”



등 속에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한 친이재명계(친명계) 지지자들의 공격을 의식한 발언으로 여겨진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지지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국내가 걱정스러운데 어떻게 떠나느냐고 나무란다. 그러나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공부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아직까지 있느냐고 하는 분도 있다.

바로 가고 싶지만 대선, 지방선거 때 제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게 맞겠다 싶었다”며 “그래서 지방선거 끝나고 원래는 6월 15일 이

후가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머뭇거리는 게 좋지 않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언급은 최근 대선과 지방

선거 연패 이후 ‘이재명 책임론’이

민주당을 흔들며 계파갈등이 번지

고 있는 가운데 친문재인계(친문계) 구심점인 자신의 출국을 향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데 대한 심경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모여든 지지자들에게는 “스스로 존중하고 사랑하기를 바란다. 세상에는 존중과 사랑만 있는 것은 아니니”라며 “어떤 사람을 경멸하고 증오한다. 그것을 여러분이 존중과 사랑으로 이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 했다.

이는 지방선거 이후 당내 계파갈

이재명 첫 등원 “무거운 책임감…최선 다할 것”

민주당 당권 백기쟁명…주도권 싸움 본격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자신을 지지하는 이른바 ‘개발개혁의집’(개발개혁의집)’들의 축하 회환 행렬 속에 국회 첫 등원을 마쳤다.

이 의원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임 일정을 내놓으면서도, 전당대회 출마 여부나 당내 가열되는 ‘친이재명계’ 대 ‘비이재명계’ 의원들 간 갈등에는 말을 아꼈다.

이날 이 의원의 의원실인 818호 앞에는 30여명의 최재진이 몰렸다.

818호는 송영길 전 의원이 쓴 의원실로, ‘공란’이었던 의원실 명쾌

는 이날 오전 등원 전 이 의원의 이름으로 채워졌다.

하지 않았다.

특히 8월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두고는 “시간이 많이 남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만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의원의 차기 당대표 출마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이재명 의원이 출마할 경우 당권 장악이 불보듯 뻔한 가운데, 이 의원이 출마해선 안 된다는 강경론부터 전당대회를 연기하자는 의견에 지도체

제를 바꿔 당대표 힘을 분산시키자는 주장까지 분출하는 백기쟁명 양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과 당권을 놓고 당내분을 제대로 수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스

호 매 만 평

이태현

